

Theme

H

## 문장의 짜임

H.Core \_ 언어와 매체

이형직(국어하기좋은날)

### 홑문장과 겹문장

자, 지금까지 문장의 정의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공부했어. 문장이 어떤 것인지 이제 좀 알겠지? 간단히 정리해 보자. 문장은 기본적으로 완성된 의미를 지니어야 해. 그러니 ‘동완이 밥’ 이런 건 문장이 될 수 없어. 동완이가 밥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야. 동완이가 밥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는 말이 붙어줘야 문장의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이때, 주체의 동작작용, 상태성질을 설명하는 말을 서술이라고 하고, 서술어가 설명하는 동작, 상태성질의 주체를 주어라고 하는 거야.

**모든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어야 해.** 이게 의미가 완성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야. 다음 예시들이 올바른 문장의 예시야.

치순이는 귀엽게 생겼다.

성재는 잘나간다.

태이는 숙제를 안 했다.

위 예시들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홑문장**이라고 해. 하나의 문장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문장의 종류에 홑문장만 있는 건 아니야. 다음 예시를 한번 보자.

① 놀부는 밥을 먹었고, 흥부는 형수님에게 뺨을 맞았다.

위 문장(이하 ①)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놀부 – 먹다’/‘흥부 – 맞았다’). 이건 ①이 사실 하나의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야. ‘놀부가 밥을 먹다’라는 문장과 ‘흥부가 뺨을 맞았다’라는 문장이 합쳐져 ①이 완성된 거지. 이런 식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하고, 홑문장이 모여 겹문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문장의 확대’라고 해. 겹문장은 결합 방식이나 문장 간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데, 크게는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뉘어**.

### 문장의 확대

놀부는 밥을 먹었다. (홑문장) + 흥부는 형수님에게 뺨을 맞았다. (홑문장)

⇒ 놀부는 밥을 먹었고, 흥부는 형수님에게 뺨을 맞았다. (겹문장)

✓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뉨!

## 이어진문장

이어진문장은 말 그대로 문장들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결합한 것을 말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 주는 게 빠를 테니 예시를 확인해 보자!

문장 1: 비가 내린다.

문장 2: 바람이 분다.

자, 문장 1과 문장 2를 이어볼까? 두 문장을 가장 무난한 방식으로 잇는다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정도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이어진 문장이야. 말 그대로 둘 이상의 문장이 이어져 있는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를 통해 이어진 형태의 문장이야. 이어진문장은 크게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 이어진문장

- ✓ 문장들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결합한 겹문장
- ✓ 연결 어미를 통해 이어짐
- ✓ 문장이 이어지는 방법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구분됨

S-P (앞 문장)

(연결 어미)

S-P (뒤 문장)

형식	설명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 홀문장이 대등한 관계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 홀문장이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진 문장

###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

먼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말 그대로 **두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된 거야. 조금 더 정확한 정의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면서도 대등한 문장’인데, 위에서 이야기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가 대표적인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야. 문장 ‘비가 내리다’와 ‘바람이 분다’가 대등한 자격으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거지. 여기서 ‘대등하다’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 가령 천 원을 가지고 푸켓몬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건, 천 원과 푸켓몬 빵이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문장들의 순서를 바꾸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문장의 의미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 대등한 가치



천 원



푸켓몬 빵



푸켓몬 빵



천 원

☞ 대등한 가치를 지녔다면, 서로 바꿀 수 있다!

###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

비가 내린다. (문장 1)

+

바람이 분다 (문장 2)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문장 2)

+

비가 내린다 (문장 1)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서로 바꿀 수 있다!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제가 없다 = 문장의 의미 변화가 없다)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나열(and), 대조(but), 선택(or)**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야.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면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문장의 의미 변화가 없는지를 보면 돼.

###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

- ✓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면서 대등함
- ✓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장의 내용이 변하지 않음.

의미 관계	연결 어미	예
나열(and)	-고, -(으)며	형직이는 밥을 먹고, 철수는 빵을 먹는다. 하늘은 맑으며, 바람은 잠잠히다.
대조(but)	-(으)나, -지만	형직이는 100점을 맞았으나, 철수는 0점을 맞았다. 철수는 굴을 좋아하지만, 명수는 굴을 싫어한다.
선택(or)	-거나, -든지	자장면을 선택하거나 짬뽕을 선택하거라.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하자.

### 도약 Point

#### 연결 어미 ‘-고’가 쓰였지만 나열의 의미가 아닌 경우

두 문장이 나열의 의미로 연결되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나열의 의미로 문장을 연결하는 어미가 바로 ‘-고’야. 하지만, ‘-고’가 단순 나열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령, ‘엄마가 장을 보고 집에 왔다.’라는 문장은 연결 어미 ‘-고’가 사용되었지만 단순 나열의 의미라고 볼 수 없어. 앞 절과 뒤 절에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도 완전히 변해 버려. 즉,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인 거지. 이렇듯, 연결 어미 ‘-고’가 사용되었지만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

###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

'종속 합성어'의 개념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쉬울 거야. **종속**이라는 건 쉽게 말해 **따끼리**라는 뜻이야. 이름을 통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두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문장들이 대등하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은 **문장들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문제가 발생**해. 예시를 들어 볼게.

② 비둘기는 팔약근이 없어서 아무 곳이나 뚫을 지린다.

②는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야. '비둘기는 팔약근이 없다.'라는 문장과 '비둘기는 아무 곳이나 뚫을 지린다.'라는 문장이 이어진 건데, **앞 문장이 원인이고 뒤 문장이 결과**인 형태야.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꾼다면 '비둘기는 아무 곳이나 뚫을 지리기 때문에 팔약근이 없다.'라는 과상망측한 문장이 탄생**해버려. 원래의 문장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이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이기 때문이야.

###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

[문장 1]	+	[문장 2]
비둘기는 팔약근이 없다	+	비둘기는 아무 곳이나 뚫을 지린다
비둘기는 팔약근이 없어서 아무 곳이나 뚫을 지린다. (O)		
[문장 2]	+	[문장 1]
비둘기는 아무 곳이나 뚫을 지린다	+	비둘기는 팔약근이 없다
비둘기는 아무 곳이나 뚫을 지려서 팔약근이 없다. (?!?!?????)		
☞ <b>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서로 바꿀 수 없다!</b>		
<b>(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문제가 생긴다 = 의미 변화가 생기거나 문장이 어그러진다)</b>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조건, 목적, 의도, 원인, 가정·양보 등의 관계로 연결**돼,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지?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		
의미 관계	연결 어미	예
원인(이유)	-아서/-어서, -(으)니, -(으)므로 등	어제 돌멩이를 먹어서 배가 아프다. 야식을 자주 먹으니 살이 쪘다.
조건	-((으)면, -거든 등	열심히 공부하면 자신보다 약간 예쁜 사람을 만난다. 봄이 되면 산에 꽃이 핀다.
목적(의도)	-((으)려, -(으)려고 등	과일을 사려 시장에 갔다. 나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100점을 맞으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양보	-((으)르자라도, -아도/-어도, -더라도 등	엄마가 화를 낼지라도 나는 오늘 할 공부를 끝내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안으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배경(상황)	-는데/-((으)ㄴ)데, -(으)니	바람이 부는데, 우산을 펼쳐도 될까?
동시성	-자, -자마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1등급 도약 Point

### 대등하게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의 구분

두 대등하게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을 구별하는 방법이 또 있어.

1.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앞 절에 보조사 ‘은/는’이 결합할 수 있음.

⇒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_ 꽃은 피고, 해는 진다. (O)

⇒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_ 해는 져서, 날은 어두워졌다. (X)

‘은/는’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의 긴밀한 연결 관계를 끊을 수 있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에서는 쓰일 수 없다고 기억해주면 좋아.

2.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의 앞 절은 뒤 절의 안긴문장으로 들어갈 수 있음.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_ 꽃이 피고, 해가 진다. ⇒ 해가 꽃이 피고 진다. (X)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_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졌다 ⇒ 날이 해가 져서 어두워졌다. (O)

앞 절이 뒤 절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앞 절이 뒤 절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야! 당연히 이런 움직임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만 가능하겠지!

## 안은문장

③ 엄복동이 자전거 도둑이었음이 밝혀졌다.

③은 얼핏 보면 하나의 문장, 즉 홀문장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그렇지 않아. 홀문장이라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야 하는데, ③은 그렇지 않거든. 엄밀히 따져본다면 ③에서는 ‘엄복동 - 자전거 도둑이다’와 ‘엄복동~도둑이었음이 - 밝혀지다’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고 있어. 즉, ③도 겹문장이라는 거야. 하지만 ③은 이어진문장은 아니야. 연결 어미를 통해 이어진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지. ③은 오히려 ‘엄복동이 자전거 도둑이다.’라는 문장이 ‘엄복동이 자전거 도둑이었음이 밝혀졌다.’라는 더 큰 문장 안에 안겨져 있는 형태라 할 수 있어. 이때 더 큰 문장 안에 들어가 안겨 있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고, 안긴문장을 안고 있는 더 큰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해. 즉, ③은 안은문장이고, ③ 안에 안겨 있는 ‘엄복동이 자전거 도둑이다.’는 안긴문장이 되는 거야.

안긴문장은 안은문장 안에서의 기능과 형태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뉘어. ③에 안긴문장인 ‘엄복동이 자전거 도둑이다’는 문장 안에 명사처럼 안겨 있으니 명사절이 되는 식이야.

[엄복동이 자전거 도둑이었음]이 밝혀졌다.

⇒ 문장 “엄복동이 자전거 도둑이었다”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하여 더 큰 문장 안에 안겨 있음.

안은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안겨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겹문장</li><li>✓ 안은문장 안에 안겨 있는 문장은 ‘안긴문장’이라고 함</li><li>✓ 안긴문장은 형태와 기능에 따라 ‘명사/관형/부사/서술/인용절’로 구분됨</li></ul>	
<p style="text-align: center;">큰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작은 문장] S-P</span>      문장</p>	
형식	설명
명사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 ]의 형태로 안겨 있는 문장</li><li>✓ 문장 안에서 [ ], [ ], [ ], [ ] 등 다양한 기능</li></ul>
관형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장 안에서 [ ]로 기능</li></ul>
부사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장 안에서 [ ]로 기능</li></ul>
서술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장 안에서 [ ]로 기능</li></ul>
인용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른 사람의 [ ]이나 [ ]을 인용</li><li>✓ 문장 안에서 [ ]로 기능</li></ul>

### 명사절을 가진 인은문장

명사절은 문장의 서술어에 명사형 어미 ‘-(으)ㅁ, -기’가 붙어서 실현돼. ‘-(으)ㅁ’이나 ‘-기’가 보인다? 그럼, 일단 “명사절이 안겨 있지 않을까?”하고 의심해 봐도 돼. 그 다음에 정말 문장이 안겨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명사절은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 등으로 쓰일 수 있어(명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명사절도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명사절	
형식	예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한 명사절	<p>※ 재상이가 부자임이 밝혀졌다. ⇒ [재상이가 부자이다]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해 명사절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주어로 기능함.</p> <p>※ 나는 명수가 공금을 횡령했음을 알게 되었다. ⇒ [명수가 공금을 횡령했다]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해 명사절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목적어로 기능함.</p>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	<p>※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가 무섭다. ⇒ [(주어 생략)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해 명사절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주어로 기능함.</p> <p>※ 집에 가기 전에 학원에 와라. ⇒ [(주어 생략) 집에 가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해 명사절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관형어로 기능함.</p>

### 도약 Point

Q. 선생님! “집에 가기 전에 학원에 와라”에서 “집에 가기”는 문장 안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니, 관형절 아닌가요?

A. 문장 안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는 절이라고 해서 전부 관형절인 건 아니야! ‘집에 가기’는 분명히 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해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보아야 해. 마찬가지로 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더라도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절이라면 명사절이라고 판단해야 해.

###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

관형절은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고, 관형사형 어미 ‘-(으)느, -는, -(으)ㄹ, -던’이 붙어 실현된다.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서 관형어처럼 쓰이고 있다면 관형절이라고 판단하면 돼.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의 예시를 줄 테니, 안겨 있는 관형절을 한 번 찾아보자!

- ① 이것은 내가 만든 녹두전이다.
- ② 이것은 내가 홍보하는 녹두전이다.
- ③ 이것은 내가 좋아하던 녹두전이다.
- ④ 이것은 내가 나중에 먹을 녹두전이다.

⇒ ‘내가 만든’ / ‘내가 홍보하는’ / ‘내가 좋아하던’ / ‘내가 나중에 먹을’

관형절은 종류가 크게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나뉘어. 관계 관형절은 관형절 안의 특정 성분이 생략되어 있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성분이 관형절의 특정 성분과 같기 때문이야. 생략이 없다면 똑같은 말이 중복되어 나오게 되니, 관형절 안의 성분을 생략하게 되는 거지. 가령 “이것은 내가 만든 녹두전이다.”라는 문장은 ‘이것은 녹두전이다’라는 큰 문장 안에 ‘내가 녹두전을 만들었다’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는 형태야. 이런 경우 관형절 안의 성분과 관형절이 수식하는 성분이 같으니, 관형절 안의 성분은 생략돼.

### 관계 관형절

- ✓ 관형절 안의 특정 성분이 생략됨

이것은 (내가 녹두전을 만든) 녹두전이다.

관형절!

(관형절 안의 ‘녹두전’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녹두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  
안은문장

반면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 안의 특정 성분이 생략되지 않아. 가령 “나는 명수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문장은 ‘나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큰 문장에 ‘명수가 당선되었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는 형태인데, 관형절 안의 성분 중 그 무엇도 생략되지 않았지? 이건 관형절의 내용과 관형절이 수식하는 성분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야. 즉, ‘명수가 당선되었다.’라는 문장의 내용과 ‘소문’이라는 관형절이 수식하는 성분이 완전히 일치하니, 관형절 안의 성분 중 하나라도 생략되면 요동격의 관계가 깨진다~ 이 말이야.

동격 관형절		
✓ 관형절 안의 특정 성분이 생략되지 않음		
✓ 관형절의 내용과 수식받는 성분의 의미가 같음		
이것은	명수가 당선되었다는	녹두전이다.
관형절! (관형절의 내용과 수식받는 '소식'의 의미가 같음.)		
안은문장		

관형절(관형사절)		
형식	예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	관계 관형절	※ 이것은 <b>동원이가 먹은</b> (먹는, 먹을, 먹던) 빵이다. ⇒ <b>[동원이가 (빵을) 먹다]</b> 에 관형사형 어미 ‘-은/-는/-을/-던’이 결합해 <b>관형절</b> 로 안겨 있음. <b>문장 안에서는 관형어</b> 로 기능함.
	동격 관형절	※ 나는 <b>동원이가 당선되었다는</b> 소식을 들었다. ⇒ <b>[동원이가 당선되었다]</b> 에 명사형 어미 ‘-는’이 결합해 <b>관형절</b> 로 안겨 있음. <b>문장 안에서는 관형어</b> 로 기능함.

###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부사절은 말 그대로 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야. **부사절은 부사형 어미 ‘-게’, ‘-도록’, 연결 어미 ‘듯이’, ‘(아/어)서’나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없이’, ‘같이’, ‘달리’ 등이 쓰여 실현돼**.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서 부사어처럼 쓰이고 있다면 부사절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아래 문장들에서 부사절을 찾아서 괄호로 묶어 볼까?

- ① 형직이가 역하게 생겼다.
- ② 전기세가 오지게 나오도록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었다.
- ③ 상인이가 소리도 없이 도착했다.
- ④ 심청이는 어머니가 없이 자랐다.

[정답]

☞ ‘형직이가 역하게’ / ‘전기세가 오지게 나오도록’ / ‘소리도 없이’ / ‘어머니가 없이’

부사절	
✓ 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기능함.	
형식	예
부사형 어미 ‘-게’, ‘-도록’	※ 그곳은 <b>꽃이 예쁘게</b> 피었다. ⇒ [ <b>꽃이 예쁘다</b> ]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해 <b>부사절</b> 로 안겨 있음. <b>문장 안에서는 부사이</b> 로 기능함.
연결어미 ‘-듯이’, ‘-(아/어)서’	※ 나는 <b>비가 와서</b> 늦었다. ⇒ [ <b>비가 오다</b> ]에 연결 어미 ‘-아서’가 결합해 <b>부사절</b> 로 안겨 있음. <b>문장 안에서는 부사이</b> 로 기능함.
부사 파생 접미사 ‘-이’	※ 그가 <b>소리도 없이</b> 떠났다. ⇒ [ <b>소리도 없다</b> ]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해 <b>부사절</b> 로 안겨 있음. <b>문장 안에서는 부사이</b> 로 기능함.

### 서술절을 기준 안은문장

자, 요정도 왔으면 대충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에 대한 감이 오지? **서술절**은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야. 서술절은 **특별한 표지가 없어서**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 만약 **문장 안에서 주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면 서술절이 안겨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해**. 예를 들어줄게.

① 하림이는 얼굴이 예쁘다.

② 기린은 목이 길다.

①과 ②는 주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야. 이유는 서술절이 안겨 있기 때문인데,

①의 ‘얼굴이 예쁘다’와 ②의 ‘목이 길다’가 서술절에 해당해.

서술절	
✓ 문장 안에서 서술어로 기능함.	
형식	예
주어 (주어 + 서술어)의 구성 ✓ 표면적으로는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 출문장으로 오인하기 쉬움. ✓ 주어가 두 번 이상 나오는 문장은 서술절이 안겨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보아야 함.	※ 형주는 <b>돈이 많다</b> . ⇒ [ <b>돈이 많다</b> ]가 별다른 표지 없이 <b>서술절</b> 로 안겨 있음. <b>문장 안에서는 서술어</b> 로 기능함.

### 인용절을 가진 인문장

인용절은 말 그대로 **인용된 절**을 말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해서 문장 안에 위치시킨다면, 그게 인용절이 되는 거야. 가령,

철수가 “나는 북극곰이 좋아.”라고 말했다. (직접 인용)

위 문장에는 “나는 북극곰이 좋아.”라는 철수의 말이 문장 형태로 안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인용절이야. 인용절은 또 크게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로 나뉘는데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 확실하게 알아둬야 해.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걸 말해. 이때, 인용했다는 표시로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인용절 뒤에는 **부사격 조사 ‘라고’**를 붙여.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조금 변형해서 인용**하는 걸 말해. 간접 인용은 상대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니, **따옴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또, 인용절 뒤에는 ‘라고’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 ‘고’**를 사용하게 돼. 아래 문장이 간접 인용의 대표적 예시야.

철수가 북극곰이 좋다고 말했다. (간접 인용)

인용절	
형식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li><li>✓ 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기능함</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직접 인용절<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변형 없이 그대로 인용</li><li>✓ 인용 부호로 큰따옴표 사용(“”)</li><li>✓ 부사격 조사 ‘라고’ 사용</li></ul></li></ul>	<p>※ 철수야, 선생님이 <b>“철수 데려와”</b>라고 하셨어. ⇒ [철수 데려와]가 변형 없이, 큰따옴표와 부사격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b>인용절</b>로 안겨 있음. <b>문장 안에서는 부사어</b>로 기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간접 인용절<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변형하여(자신의 말로 바꾸어) 인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용부호 사용하지 않음</li><li>✓ 부사격 조사 ‘고’ 사용</li></ul></li></ul></li></ul>	<p>※ 철수야, 선생님이 <b>너 데려오라고</b> 하셨어. ⇒ [철수 데려와]가 변형되어, 인용 부호 없이, 부사격 조사 ‘고’가 붙어 <b>인용절</b>로 안겨 있음. <b>문장 안에서는 부사어</b>로 기능함.</p>

### 도약 Point

직접 인용절 ⇒ 간접 인용절 / 간접 인용절 ⇒ 직접 인용절 유의 사항

내 외사촌 동생 철수가 어제, “나는 내일 아빠랑 낚시하러 갈 거야”라고 했어. 라는  
직접 인용절이 안긴 문장을 직접 인용절로 고친다고 해 보자. 적절하게 고친다면 내  
시촌 동생 철수가 어제, 자기는 오늘 외삼촌이랑(or 자기 아빠랑) 낚시하러 간다고 했  
어. 정도로 수정해야 해. 이때 시간 표지를 부적절하게 쓰거나 직접 인용절 안에 있는  
'나' or '아빠'를 그대로 쓴다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 이처럼 직접 인용  
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는 문장의 내용을 적절하게 바꿔 줘야 해. 간접 인용절을  
직접 인용절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겠지?

## 키워드로 정리 \_ 문장의 짜임 CORE

홀문장

겹문장

이어진문장

대등하게 연결

종속적으로 연결

안은문장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